

어촌마을에서 공동체의식의 지역사회참여 영향요인

- 경상남도 어촌마을을 중심으로 -

이경한^a · 박덕병^{b*}

^a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지역사회개발학과 박사과정 (충남 예산군 예산읍 대학로 54)

^b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지역사회개발학과 교수 (충남 예산군 예산읍 대학로 54)

Factors Influencing Community Participation in Fishery Community

- Focus on the Fishery Community in Gyeongsangnam-do -

Koung-Han Lee^a · Duk-Byeong Park^b

^aPh.D Candidate, Department of Community Development, College of Industrial Science, Kongju National University, Yesan, Chungnam, Korea

^bProfessor, Department of Community Development, College of Industrial Science, Kongju National University, Yesan, Chungnam, Korea

Abstract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sense of community and community participation for successful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community participation on sense of community. Data were collected from 173 usable respondents from 8 villages in Gyeongsangnam-do. Results of a factor analysis yielded two dimensions of sense of community which were shared emotional connection/influence and reinforcement of needs/membership.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female, less educated, younger are more likely to be highly participated. The study suggested that policy makers and community practitioners consider the sense of community, age, gender, and educational background to enhance community participation.

Key words: sense of community, community participation, community development

1. 서론

지역사회개발에서 지역사회참여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Mansuri, & Rao, 2013; Swapan, 2016; Matarrita-Cascante, Luloff, Krannich, & Field, 2006; Morris, & Gilchrist, 2011; Talò, Mannarini, & Rochira, 2013; Wu, 2012). 지역사회참여는 지역개발 프로젝트의 질을 제고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지역사회개발은 그 지역 구성원들의 조율과 협동을 통해 진행되는 체계적인 과정으로(정하용, 2007), 주민참여가

전제되지 않고는 지역사회발전과 개발사업의 성공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전제로 성과를 끌어내야 하는 지역사회개발은 지역의 주민참여를 통해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의 공공재 추구 성향을 촉진하고(Talò, Mannarini, & Rochira, 2013), 공동체 발전과 공동체 의식의 구축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으로 이어진다.

우리나라에서 실시해 온 중앙집권적 지역개발사업은 여러 측면에서 사회적 변화와 발전을 이루기도 했지만, 개발과정에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해마다 감소추세를 보이

주요어: 공동체 의식, 주민참여, 지역사회개발

* 교신저자(박덕병) 전화: 041-330-1383, e-mail: parkdb84@kongju.ac.kr

는 출산율과 고령화로 인한 노동 가능 인구의 감소로(통계청, 2020) 경제 성장둔화, 노인부양 부담증가, 삶의 질 하락과 사회적 불안으로 이어지는 실업문제(통계청, 2020), 각종 사회질병으로 연결되는 환경문제(통계청, 2020)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는 지역개발사업에서 지역주민의 참여와 지역의 특수성을 담아내지 못한 정부주도의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사업주도(정하용, 2007) 형태의 결과이다.

지역사회발전과 지역사회개발의 성공을 위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지역사회참여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는 인구학적 특성(성별, 연령, 학력, 직업, 소득 등)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김혜정, 2015; 하병규, & 권영주, 2015; Hill, 1996; Milbrath, & Goel, 1977), 지역사회변인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곽현근, & 유현숙, 2005; 김혜정, 2015; Chavis, & Wandersman, 1990; Mesch, & Schwirian, 1996)가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으로, 공동체 의식(양덕순, & 강영순, 2008; 임광명, 2017; 최문형, 2013; 하병규, & 권영주, 2015; Bachrach, & Zautra, 1985; Chavis, & Wandersman, 1990; Davidson, & Cotte, 1989; Holiday, 2008; Kingston, Mitchell, Florin, & Stevenson, 1990; Talò, Mannarini, & Rochira, 2013; Mannarini, & Fedi, 2009), 지역사회 친밀도(Jennings, & Krannich, 2013; Matarrita-Cascante et al., 2006; Sapetra, Ridwan, Sahide, & Masuda, 2019), 지역사회만족(Gillo, Teixeira, & Wilson, 2010; Sanchez-Franco, Buitrago-Esquinas, & Yniquez, 2012)을 분석한 연구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지역사회참여에 관한 연구모형에 사회인구학적 변수, 지역사회 변수,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동시에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여 통합적인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는데 그 의의가 있다. 특히 이전의 선행연구가 농촌 지역사회를 주로 분석하였다면, 본 연구는 어촌 지역사회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어촌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어촌계 중심의 지역개발사업 추진과 지역사회참여 특성을 분석한 것에 그 특징이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개발에서 지역사회가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지역사회개발사업의 실효성 있는 성공을 위해, 경남어촌 8개 마을 주민들의 인구학적 특성, 지역사회특성, 공동체 의식을 독립변수로 하여 단계적으로 투입하였다. 독립변수 투입 후 위계적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주민참여의 영향요인을 검증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지역사회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책개발자와 실무자가 주민참여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 그 시사점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지역사회개발

1948년 Cambridge에서 연방국의 개발을 위해 열린 식민지 행정관회의에서 처음 사용된 지역사회개발은 행정용어로 적극적인 참여와 주도적 노력으로 지역사회의 생활향상을 도모하도록 계획된 하나의 운동이라고 정의하였고 ‘Community Development’라는 용어가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게 되었다(정하용, 2007).

Community Development Academy(1997)는 지역사회개발을 지역주민들이 지역 및 외부의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를 개발하는 것을 배워 나가려는 자주적인 노력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지역사회개발은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체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며, 공동체는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발전을 이룬다고 하였다(Cheers, & Luloff, 2001).

1962년 일본에서 시작 된 지역개발사업의 한 형태인 ‘마을만들기’사업은 도시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민의 삶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처음 시작 되었으나, 주민 스스로 가치와 규범을 정하고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마을만들기’사업 정책의 핵심 내용이었다(김필두, & 윤준희, 2016; 당인숙, & 류진아, 2017).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전국적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는 다양한 지역개발사업(농산어촌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어촌뉴딜300사업 등) 역시, 지역주민들이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역량강화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의 구축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볼 수 있으며(김우영, 2013), 지역개발사업의 핵심 목표인 지역주민의 역량강화를 바탕으로 한 지역공동체의 지속성 확보는 지역주민의 지역사회 공공조직 또는 프로그램 참가를 통하여 지역공동체의 역량이 성장한다(정민수, 조병희, & 이성천, 2007; Pothukuchi, 2005)고 하였다. 이러한 지역사회개발의 한 형태인 어촌활력기반구축사업은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마을과 어촌마을을 대상으로 어촌인구 감소·고령화와 어업 중심 단일 경제구조의 다변화를 위한 현장밀착형 전담지원 기능을 수행하여 어업 외 소득증대 등 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위한 사업이다.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28조의 2에 의하여 ‘2022년을 기준으로 매년 50억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촌활력기반구축사업은 어촌에 존재하는 모든 유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어업과 식품, 특산품제조가공(2차산업) 및 유통·판매, 문화, 체험, 관광, 서비스(3차산업) 등을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어촌특화역량강화, 특화상품 연구 개발지원, 판매 유통 홍보지원사업을 중심으로 단일 어촌지역 10개 시·군과 혼합 어촌지역 21개 시·군에서 추진되고 있다.

2.2. 공동체 의식

일반적으로 공동체(community)를 ‘지리적, 사회적 공간에서 공동의 가치와 유사한 정체성을 갖춘 사람들의 집단’이라 부르며, 고대사회에서는 구성원들의 생존을 잇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했던 가족이나 촌락에서 시작했다(권미정, & 박태영, 2014), 이후 전통적인 지역공동체는 목표 지향적으로 개인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지 못한 측면이 있지만, 현대사회의 공동체는 가치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활용되는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성희자, & 전보경, 2006). 오늘날 공동체는 구성원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이루며, 삶의 질을 높이고 이를 통해 구성원들간의 사회적 관계의식을 만들어 간다.

공동체 의식(sense of community)은 충족감(needs fulfillment), 소속감(membership) 영향력(influence), 정서적 친밀감(emotional connection)으로 구성된다(Peterson, Speer, & McMillan, 2008; Talo, Mannarini, & Rochira, 2014)). 즉 소속감은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욕구를 충족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공동체 안에서 욕구에 대한 만족을 느끼는 충족감과 연계된 감정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구성원들 서로에게 효과를 주고받는 상호작용의 개념인 영향력으로 상호작용을 통하여 느낌을 공유하는 가까운 관계의 정서적 친밀감으로 공동체 의식을 정의할 수 있다.

공동체 의식은 집합적인 경험으로서 인간사회에 나타나는 기본적인, 특징적인 현상이다(Peterson, Speer, & McMillan, 2008). 공동체 의식은 이웃(Brodsky, & Marx, 2001; Perkins, Florin, Rich, Wandersman, & Chavis, 1990), 심리사회 회복프로그램(Herman, Onaga, Pernice-Duca, Oh, & Ferguson, 2005), 지역사회조직(Hughey, Speer, & Peterson, 1999), 일직업장(Pretty, & McCarthy, 1991), 종교단체(Miers, & Fisher, 2002), 청소년(Bateman, 2002; vieno, Perskins, Smith, & Santinello, 2005), 이민자 공동체(Sonn, 2002), 소방관(Cowman, Ferrari, & Liao-Troth, 2004), 국제협력 공동체(Obst, Zinkiewicz, & Smith, 2002),

공동체 구성원들의 사회적 관계에 의해 형성된 공동체 의식을

McMillan, & Chavis(1986)는 ‘소속감으로 공동체의 문제를 개인 혹은 집단의 문제로 인식하고 구성원들의 욕구를 함께 논의를 통해 해결함으로써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라고 정의하였듯이, 개인이 특정지역에 거주하며 본인의 욕구를 충족하고 다른 구성원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영향을 주고받음으로 감정을 공유하는 상태라고 정의하였다(고진숙, 2019).

성희자, & 전보경(2006)은 공동체 의식을 서로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영역의 공동체 내에서 함께 일하며 겪어 온 집단의식이라고 설명하였고, 면대면 접촉이 가능한 정도의 지역적 한계를 설정하고, 대면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며(이춘욱, 2000), 지역적 한계를 설정하였다. 이렇게 지리적으로 한정된 곳에 살면서 신뢰와 유대감을 가지고 서로에게 상호작용하는 집단을 지역 사회 공동체라고 정의(강용배, 2004)하였다.

또한, 공동체 의식을 유대감과 집단의식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도시와 농촌과 같은 지리적(geographic), 지역적(territorial) 특징과 인간관계의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관계적(relational)인 생각을 포함한다고 설명하였다. 즉, 일정한 공간에서 상호 간의 신뢰와 유대감을 가지고 서로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주민 단위의 집단을 지역공동체라 정의하였다(성희자, & 전보경, 2006; 양덕순, & 강영순, 2008; McMillan, & Chavis, 1986).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공동체 의식은 지리적(geographic), 지역적(territorial)으로 일정 공간의 한계를 강조하는 개념이며, 그 한계 공간에서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원들이 문제해결과 욕구를 충족하려는 의식을 말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공동체 의식을 ‘한정된 지리적, 지역적 공간에서 그 구성원들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집단의식’으로 정의하였다.

공동체 의식의 구성요소에 관한 선행연구를 보면 상호영향 의식, 구성원의 감정, 욕구충족과 통합, 정서적 연계, 4가지 구성요소를 공동체 의식으로 제시하였다(김경준, 1999; 양덕순, & 강영순, 2008; McMillan, & Chavis, 1986). 임우현(2006)은 공동의 목적과 가치추구 활동을 함께하는 관계 지향성, 친밀성, 일체감과 배려로 공동체 의식이 구성된다고 설명하였다.

성희자, & 전보경(2006)은 공동체 의식의 구성요소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받게 되는 충만함,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연대의식, 욕구의 충족과 통합, 상호 영향의식 및 지역사회와의 일체감, 지역사회 구성원들과의 정서적 친밀감으로 정의하였다. 박덕병, 임광명, & 안재문(2018)은 정서적 유대감(shared emotional connection), 소속감(membership), 상호영향(influence), 필요의 통합과 충족(integration and fulfillment of needs)을 공동체

의식의 구성요소로 제시하였다.

이상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 해 보면, 공동체 의식의 하위 변수인 구성요소로 소속감, 영향력, 욕구의 통합과 충족, 정서적 친밀감으로 정리할 수 있다(김경준, 1999; 양덕순, & 강영순, 2008; McMillan, & Chavis, 1986).

2.3. 지역사회 주민참여

지역사회의 주민참여는 그 지역 구성원들의 삶의 질의 높이고(Nussbaum, 1999), 지역의 사회적 복지를 강화하며(Keyes, 1998; Wandersman, & Florin, 2000), 구성원들의 사회적 역량을 강화하고(Chavis, & Wandersman, 1990; Zimmerman, & Rappaport, 1988), 사회적 자본 강화로(Putnam, 2000) 귀결된다. 이는 다시 공동체의 발전과 공동체 의식 구축으로 이어진다.

Cunnigham(1972)은 주민참여를 지역공동체의 일반적 결정사항에 대하여 공적으로 결정권이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의도로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으로 설명하였으며, 이종수, & 윤영진(2009)은 주민참여를 지역사회 구성원인 주민이 기존의 정치체제 안에서 지역사회 정책 결정 과정과 집행에 대해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체의 과정이라고 설명하였고, 최문형, & 정문기(2015)는 주민이 공권력을 지닌 정부의 정책 결정 혹은 이와 관련된 의사결정 전반에 영향력을 미치며 참여하는 행위로 설명하였다. 즉, 주민참여를 지역주민이 정부의 정책 결정 또는 이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소영(2019)은 주민참여를 자신이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지역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과정이 현실적으로부터 유리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라고 설명하고, Huntington, & Nelson(1976)은 주민참여를 정치적 엘리트가 아닌 일반 시민들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의식적인 활동임과 동시에 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의 통제장치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는 일반 시민에 의해 행정의 민주성을 제고 하고 의사결정자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한다(하병규, & 권영주, 2015).

Ghai(1990)는 주민참여를 배제된 자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과정, 권력과 제한된 공동자원의 공유,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사회집단에 의도적 노력, 세 가지 주요 요소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하세현, & 윤이화(2012)는 주민참여를 거주지역 내 지역 문

제해결을 위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며, 참여의 핵심 가치는 약자의 직접적·자발적·실질적 의사반영이라고 설명하며, 자발적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Oakley(1989)는 개발 활동에 대한 사회참여는 개인, 가족 또는 공동체가 자신의 복지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들 자신과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능력을 개발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고,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해 주민역량을 강화하여 공동체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며, 공동체는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발전을 이룬다고 정의하여(Cheers, & Luloff, 2001) 지역사회개발에서 주민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주민참여는 정치적, 사회적 개념으로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지역사회의 일반적 결정 과정에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직접적·간접적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며 그들 자신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능력을 개발하는 과정으로 정의한다.

2.4. 공동체 의식과 주민참여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과 주민참여는 모두 지역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사회의 인적자원을 활성화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는 공동체 발전에 상호연관된 핵심요소이다(Talò, Mannarini, & Rochira, 2013).

김혜정(2012)은 지역사회 시민의 참여활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서울시 4개 자치구(종로구, 용산구, 강남구, 서초구)를 선정하여 다양한 시민참여 활동경험이 있는 시민 300명을 표본 추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한 결과 인구학적 특성 중 연령, 학력, 소득이 주민참여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주민참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며, 직접적인 요인으로는 시민역량 중 ‘공동체 참여경험’으로 시민참여에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시민 의식, 그리고 시민적 태도로 나타났다.

곽현근, & 유현숙(2005)은 주민참여 및 주민참여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동네 주민조직과 관련한 영향요인을 알아보고, 주민참여와 사회적 자본인 집합적 효능감의 영향 관계를 연구했다. 연구를 위해 충북 청원군 8개면 성인 617명 대상으로 로지스틱 회귀모형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독립변수로 동네 애착(인지적, 일상적, 사회적), 조직 분위기(리더십, 응집력, 공식적 성격), 분권화 인식을 투입하였다. 연구결과 주민참여에 인구학적 특성의 연령, 교육, 결혼상태가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요인에는 주거형태, 주거기간, 이사 횟수가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동네 애착에는 일상적 유대감이, 조직 분위기에는 응집력이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주민의 동네 조직참여가 주민의 집합적 효능감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연구결과로 제시하여 동네 단위의 주민 조직화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박덕병, 임광명, & 안재문(2018)은 공동체 의식이 지역사회 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경기도 평택시 농업기술센터 농촌 지역주민 교육생 134명을 대상으로 위계적 조선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공동체 의식 요인으로 연대감, 소속감, 정서적 친밀감의 3가지 구성요인이 추출되었다. 연구결과 추출요인 모두 지역사회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요인 중 거주기간을 통제변수로 투입한 연구결과에서는 거주기간에 따라 적극적 참여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거주기간이 주민참여에 영향요인이라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양덕순, & 강명순(2008)은 공동체 의식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제주지역 성인남녀 813명을 인구비례 임의 추출을 통해 표본을 선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독립변수인 공동체 의식의 요인으로 충족감, 연대감, 소속감, 친밀감 4가지 구성요인이 추출되었다. 인구학적 특성 중 성별, 연령, 학력이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요인인 거주기간은 주민참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참여는 주민참여 의향, 주민 참여도, 주민참여 관심도로 연구결과 주민 참여도에는 공동체 의식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하병규, & 권영주(2015)는 공동체 의식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서울시 마을만들기 참여주민 296명을 표본 추출하였다. 마을공동체 참여여부의 통제변수를 투입한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공동체 의식의 구성요인으로 구성원의식, 충족감, 연대감, 상호영향의식, 정서적 친밀감, 장소 정주성의 6개 요인을 추출하였다. 종속변수의 주민참여를 일상적 참여의식, 제도적 참여, 비제도적 참여로 투입하였다. 연구결과 공동체 의식의 구성요소들은 전체적으로 주민참여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충족감, 연대감, 상호영향의식 요인은 두 개 모형 이상에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영향요인이라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최문형, & 정문기(2015)는 서울특별시민 310명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방법으로 자료 수집 후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공동체 의식이 주민참여(개별적 참여, 집단적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인구학적 특성요인 중 성별은 주민참여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기간은 집단적 주민

참여에만 영향을 미치며, 공동체 의식 중 구성원의식, 상호영향의식, 필요의 통합과 충족, 공유된 감정의 연계 4개요인 모두 개별적 주민참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집단적 주민참여에는 상호영향 의식과, 공유된 감정의 연계 2개 요인에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Hassan, Muturi, & Samantar(2018)는 지역개발사업에서 적극적 참여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소말리아 푼틀렌 주 가로웨의 JPLG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8개 마을의 마을발전위원 56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지역개발사업에 적극적 참여에 영향요인으로 인구학적 특성 중 교육수준은 문맹자가 많아 지역개발사업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지역사회요인으로 정보공유 수준, 시민권리 인식수준, 문화적 영향 3가지 요인을 분석한 결과, 정보공유 수준만이 적극적 주민 참여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Bachrach, & Zautra (1985)는 미국 아리조나주 피닉스 지역의 농촌 지역주민 99명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을 위하여 공동체 의식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활동에 감정해결 사회활동 참여보다 주민의 참여가 높다는 연구결과와 공동체 의식의 증가는 지역주민의 사회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Matarrita-Cascante, Luloff, Krannich, & Field(2006)은 공동체 의식이 이주민과 원주민의 공동체참여 수준의 차이를 확인하고, 이들의 공동체참여가 지역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사회 참여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미국의 유타 남부의 가펠드, 아이언, 케인, 워싱턴, 웨인 카운티 5개 주 원주민과 이주민 1,409명의 표본을 추출하여, 독립변수로 인구학적 특성, 지역사회특성 요인으로 거주기간, 공동체 애착(공동체 애착, 공동체 참여수준, 조직 수, 활동시간), 공동체 만족도(상호작용)를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이주민과 원주민 모두 인구학적 특성요인 중 종교활동이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요인 중 거주기간은 참여에 정적인 영향요인이며, 공동체 의식 중 공동체 참여시간이 주민참여에 정적인 영향요인으로 연구결과 나타났다.

Talò, Mannarini, & Rochira(2013)는 1990년부터 2012년까지 발표된 학술지 23개를 표본 추출하여 메타분석을 통해 공동체 의식과 공동체 참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공동체 의식이 공동체참여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공동체 의식은 정치참여와 주민참여는 비슷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

〈표 1〉 공동체 의식의 주민참여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대상자	독립변수		연구결과 및 시사점
		종속변수		
김혜정(2012)	서울시 4개 자치구 주민	시민역량, 시민적태도, 제도적측면	시민참여(투표, 선거운동, 시민접촉, 항의, 지역공동체활동, 시민단체활동)	시민참여의 가장 큰 영향요인은 학력이며, 직접요인은 공동체 참여경험으로, 다양한 시민참여를 위한 방안으로 시민기술 확보를 위한 시민교육의 확대가 필요하다.
곽현근, & 유현숙(2005)	충북 청원군 8개면 주민	동네애착(인지적, 일상적, 사회적), 조직분위기(리더십, 응집력, 공식적 성격)	동네조직참여	동네조직의 참여가 주민의 집합적 효능감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동네 단위의 주민 조직화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박덕병, 임광명, & 안재문(2018)	경기도 평택시 농업기술센터 교육생	공동체 의식(연대감, 소속감, 정서적 친밀감) / 조절변수:거주기간	지역사회활동 참여	공동체 의식은 참여의 영향요인으로 거주기간은 소속감에 영향을 미치며, 지속적인 주민교육으로 공동체 의식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양덕순, & 강영순(2008)	제주지역 성인남녀	공동체 의식(충족감, 연대감, 소속감, 친밀감)	주민참여(주민참여 의향, 주민참여도, 주민참여 관심도)	공동체 의식은 주민참여에 직접적 영향은 미치지 않으나, 지역발전 사업에서 공동체 의식은 중요한 요인이다.
하병규, & 권영주(2015)	서울시 마을만들기 참여주민	구성원 의식, 충족감, 연대감, 상호영향의식, 정서적 친밀감, 장소 정주성	일상적 참여의식, 제도적 참여, 비제도적 참여	충족감, 연대감, 상호영향의식은 주민참여에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마을공동체 조성사업은 주민참여와 공동체 의식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의 지속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문형, & 정문기(2015)	서울특별시민	구성원 의식, 상호영향의식, 필요의 통합과 충족, 공유 된 감정의 연계	주민참여(개별적 주민참여, 집단적 주민참여)	공동체의식은 주민의 개인적·집단적 참여에 차이를 보이며, 공동체의식은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한다.
Hassan, Muturi, & Samantar(2018)	소말리아 가로웨시 8개 마을별 발전위원	정보공유 수준, 시민권리인식수준, 교육수준, 문화영향	지역개발사업 참여	주민의 교육수준이 지역개발의 한계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하며, 사업의 정보공유는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발사업의 모든 단계에 주민참여가 이루어 져야 한다.
Bachrach, & Zautra(1985)	미국 아리조나, 농촌지역주민	공동체 의식증가	공동체 참여	지역주민의 공동체의식의 증가는 지역사회 공동체 활동참여를 확대 시킨다.
Matarrita-Cascante, Luloff, Krannich, & Field(2006)	미국 5개주 이주민과 원주민	인구학적특성, 거주기간,공동체애착, 공동체 만족도, 사회적 상호작용	공동체 참여	거주기간과 공동체 참여시간은 원주민과 이주민 모두 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높은 수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의 차이의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Talò, Mannarini, & Rochira(2013)	1990년~2012년 발표 된 학술지	공동체 의식, 참여유형, 연령, 국가	지역사회 참여	공동체 의식의 소속감, 영향력, 감정의 연계가 주민참여의 영향요인으로 연계되며, 활발한 참여에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는 문화적 맥락에서 공동체 의식과 밀접한 관계를 시사한다.

구결과가 나타났다. 인구학적 특성요인 중 연령이 참여에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공동체 의식 중 소속감, 영향력, 정서적 친밀감이 지역사회 참여에 연결된 영향요인이라고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상의 공동체 의식의 주민참여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는 <표 1>과 같으며,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인구학적 특성요인 중 성별은 참여에 정적인 영향(양덕순, & 강영순, 2008)을 미친다고 연구결과를 제시 한 반면,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최문형, & 정문기, 2015)하여 상반된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연령이 높을수록(곽현근, & 유현숙, 2005; 김혜정, 2015; 양덕순, & 강영순, 2008; Talò, Mannarini, & Rochira, 2013), 학력이 높을수록(김혜정, 2015; 양덕순, & 강영순, 2008), 소득이 높을수록(김혜정, 2015) 지역사회 참여활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기혼자의 경우 지역

사회에 참여율이 더 높으며(곽현근, & 유현숙, 2005), 종교활동이 지역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Matarrita-Cascante, Luloff, Krannich, & Field, 2006)으로 제시되었다.

주민참여 영향요인으로 인구학적 특성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주민참여에 개인 의사결정의 중요성 때문이다(김혜정, 2012). 대다수의 연구에서 인구학적 특성의 변수는 지역사회특성 요인 또는, 연구자의 연구결과에 관한 연관성 강화를 위한 변수로 작용된다(Talò, Mannarini, & Rochira, 2013).

지역사회특성 요인 중 주민참여 영향요인으로 거주기간이 길수록 주민참여에 정적인 영향을(곽현근, & 유현숙, 2005; 박덕병, 임광명, & 안재문, 2018; Matarrita-Cascante, Luloff, Krannich, & Field, 2006)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반면, 거주기간은 주민참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양덕순, & 강영순, 2008)는 상반 된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거주기간은 집단적 주민참여

에는 영향요인으로 작용하나, 개별적 참여에는 영향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최문형, & 정문기, 2015)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외 공동체 참여경험이 많을수록, 정치적 효능감이 높을수록(김혜정, 2015),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Gamo, Habebo, Mekonnen, & Park, 2021), 공동체의 참여시간이 길수록(Matarrita-Cascante, Luloff, Krannich, & Field, 2006), 지역사회의 정보를 많이 공유 할수록(Hassan, Muturi, & Samantar, 2018) 주민 참여가 활발해 진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공동체 의식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면 공동체 의식의 구성요인 중 정서적 친밀감이 높을수록(박덕병, 임광명, & 안재문, 2018; 최문형, & 정문기, 2015; Matarrita-Cascante, Luloff, Krannich, & Field, 2006; Talò, Mannarini, & Rochira, 2013), 영향력이 높을수록(곽현근, & 유현숙, 2005; 하병규, & 권영주, 2015; 최문형, & 정문기, 2015; Talò, Mannarini, & Rochira, 2013), 소속감이 높을수록(박덕병, 임광명, & 안재문, 2018; Talò, Mannarini, & Rochira, 2013), 연대감이 높을수록(박덕병, 임광명, & 안재문, 2018; 하병규, & 권영주, 2015) 주민참여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공동체 의식이 주민참여에 일정한 영향력은 미치나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는 상반된 연구결과(양덕순, & 강영순, 2008)를 제시하였다.

3. 연구방법

3.1. 자료수집

이번 연구의 조사대상 지역은 경상남도 어촌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8곳의 어촌마을(남해군 고두마을, 노량마을, 통영시 대항마을, 거제시 학동마을, 대금마을, 고성군 입암마을, 창원시 십리마을)이다. 어촌특화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8개 마을 대상으로 마을당 30명씩 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한 주민을 대상으로 대면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한 주민이 대부분 고령인 상황을 감안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설문조사 전 조사 대상자에게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설문 문항에 대한 설명회를 마을별로 진행하였다. 마을별 설명회 종료 후 편의추출방법으로 설문대상자와 직접 대면조사 방법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21년 4월 15일부터 5월 25일까지 45일간

진행하였으며, 마을별로 사업설명회 후 동일한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마을사업에 참여한 8개 마을 주민 2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본 연구의 초점이 되는 여러 분석모형의 일관성 있는 비교를 위하여 일정한 변수들에 응답하지 않은 설문지 67부를 제외하고 173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3.2. 측정도구

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변수로는 <표 2>에서와 같이 성별, 연령, 학력, 소득을 사용하였다. 지역개발사업의 지역사회참여에 대한 설문조사 문항은 선행연구(박덕병, 조영숙, & 이민수, 2006; 이채식, 박덕병, & 이민수, 2007; 최홍규, 2018)를 참고하여 수정 보완하여 설문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측정의 기준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그저 그렇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까지 Likert 척도 기준을 사용하였다.

공동체 의식(sense of community)에 대한 설문조사 문항은 McMillan, & Chavis (1986)의 공동체 의식 측정 도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의 영향력, 소속감, 충족감, 정서적 친밀감의 요소로 공동체 의식에 대한 문항은 총 11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종속변수인 주민참여는 지역사회개발 참여의 수준으로 측정의 기준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그저 그렇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까지 Likert 척도 기준을 사용하였다.

3.3. 분석방법

이번 연구의 자료 분석방법은 자료 분석은 자료 분석은 SPSS (Window ver. 24)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분석은 크게 2단계로 이루어졌다. 첫째, 측정 도구 중 독립변수인 공동체 의식에 대하여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 하였다. 요인분석의 적절성 확인을 위하여 Bartlett의 구형성검정치(Sphericity)와 Kaiser-Meyer-Olkin(KMO)의 표본적절성검사(Measure of Sampling Adequacy)를 실시하였다. Cronbach α 값을 구하여 추출된 요인들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두 번째로 모형1, 모형2, 모형3으로 구분하여 영향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모형1에서는 개인의 인구학적 특성인 성별, 연령, 학력, 연간소득을 변인으로 투입하였고, 모형2에서는 지역사회 요인인 거주형태, 거주기간, 주민협의체 회원여부, 주민협의회

역할을 변인으로 투입하였다. 모형3에서는 공동체 의식의 구성요소 중 요인분석 연구결과 도출된 ‘충족감·소속감’과 ‘정서적 친밀감·영향력’을 두 개의 변인으로 묶어 투입하여 지역사회개발 사업에서 지역사회가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4. 연구결과

4.1.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로는 남성 97명(56.1%), 여성 76명(43.9%)으로 나타났으며, 연령 구성비는 40대 10명(5.8%), 50대 36명(20.8%), 60대 76명(43.9%), 70대 39명(22.5%), 80세 이상이 12명(6.9%)으로 조사되었다. 학력 조사는 무학 7명(4.0%), 초졸 46명(26.6%), 중졸 27명(15.6%), 고졸 65명(37.6%), 대학교 이상 28명(16.2%)으로 조사되었다. 연간소득은 1천만원 미만인 62명(35.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천만원 ~ 3천만원 47명(27.2%), 3천만원 ~ 5천만원 40명(23.1%), 5천만원 ~ 8천만원 12명(6.9%), 8천만원 이상 12명(6.9%)으로 조사되었다. 조사지역의 거주형태를 묻는 질문에 거주 157명(90.8%), 비거주 16명(9.2%)으로 조사되었으며, 거주기간은 1년 ~ 9년이 35명(20.2%), 10년 ~ 19년 35명(20.2%), 20년 ~ 29년이 5명(2.9%), 30년 ~ 39년이 8명(4.6%), 40년 이상이 90명(52.0%)으로 조사되었다. 주민협의체 회원이 104명(60.1%), 비회원이 69명(39.9%)으로 조사되었으며, 주민협의체

의 역할에 일반주민이 109명(63.0%), 이장·위원장 16명(9.2%), 임원이 48명(27.7%)으로 조사되었다.

4.2. 요인분석

이번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인 주민참여에 독립변수인 공동체 의식의 영향요인을 규명을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 문항들의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을 위하여 각각 문항 척도 기준의 KMO(Kaiser-Meyer-Olkin) 테스트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Sphericity)를 실시하였다. 검정결과 KMO의 표본적합도 검정값이 0.883으로 0.6보다 높은 수치로 표본의 크기가 분석에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값 역시 $\chi^2=1039.499$ (df=55, $p<0.01$)로 유의하였다.

총 분산 설명력 역시 전체 변량의 63.417%로 60% 이상의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공동체 의식은 2개인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하위요인에 의하여 잘 설명되고 있다. 공동체 의식의 요인은 ‘이 지역사회 공동체에서 내가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만약 지역사회에 문제가 생긴다면,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나는 지역사회 공동체에 영향력을 갖고 있다’, ‘나는 나의 이웃들이 내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할까를 항상 조심하며 살고 있다’, ‘이 지역사회에서 사람들은 서로 잘 어울려 살고 있다’, ‘내 이웃들은 대부분 나를 알고 있다’로 6개의 변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체 변량의 53.999%를 설명하고 있다. 이들 변인은 공동체 의식의 구성요소인 정서적 친밀감과 영향력에 관련된 설문 문항으로 ‘정서적 친

〈표 2〉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구분		빈도	구분		빈도
성별	남성	97(56.1)	학력	무학	7(4.0)
	여성	76(43.9)		초등학교	46(26.6)
연령	40세-49세	10(5.8)		중학교	27(15.6)
	50세-59세	36(20.8)		고등학교	65(37.6)
	60세-69세	76(43.9)	대학이상	28(16.2)	
	70세-79세	39(22.5)	연간소득	1천만원 미만	62(35.8)
	80세 이상	12(6.9)		1천만원-3천만원	47(27.2)
거주형태 (거주=1/비거주=2)	거주	157(90.8)		3천만원-5천만원	40(23.1)
	비거주	16(9.2)		5천만원-8천만원	12(6.9)
거주기간	1년-9년	35(20.2)	8천만원이상	12(6.9)	
	10년-19년	35(20.2)	주민협의체 회원여부	아니오	69(39.9)
	20년-29년	5(2.9)		예	104(60.1)
	30년-39년	8(4.6)	주민협의체 역할	일반주민	109(63.0)
	40이상	90(52.0)		이장·위원장	16(9.2)
				임원	48(27.7)

〈표 3〉 공동체意識 요인분석

변수	요인부하량 (공동성)	요인 고유치	분산 설명력	Cronbach α	평균
요인 1. 정서적 친밀감/영향력 (Shared Emotional Connection/Influence)					
이 지역사회 공동체에서 내가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0.783				1.97
만약 지역사회에 문제가 생긴다면, 지역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0.686				2.13
나는 지역사회 공동체에 영향력을 갖고 있다(연대)	0.677	5,940	53.999	0.888	2.25
나는 나의 이웃들이 내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할까를 항상 조심하며 살고 있다	0.646				2.05
이 지역사회에서 사람들은 서로 잘 어울려 살고 있다	0.587				1.92
내 이웃들은 대부분 나를 알고 있다	0.531				1.82
요인 2. 충족감/소속감 (Reinforcement of Needs/Membership)					
나는 내가 사는 지역사회는 나에게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한다	0.692				1.65
지역사회에 살고있는 사람들은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0.653				1.94
나는 이 지역사회가 집같이 느껴진다	0.640	1,036	9.418	0.837	1.85
내 이웃과 나는 지역사회로부터 원하고 있는 것이 같다	0.573				1.99
나는 오랜 기간 동안 이 지역사회에서 살기를 기대하고 있다	0.526				1.61

밀감·영향력'으로 명명하였다.

공동체 의식의 요인2는 '나는 내가 사는 지역사회는 나에게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한다.',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나는 이 지역사회가 집같이 느껴진다.', '내 이웃과 나는 지역사회로부터 원하고 있는 것이 같다.', '나는 오랜 기간 동안 이 지역사회에서 살기를 기대하고 있다.'로 5개 변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체 변량의 9.418%를 설명하고 있다. 이들 변인은 공동체 의식의 구성요소의 충족감과 소속감에 관련된 설문 문항으로 '충족감·소속감'으로 명명하였으며, 공동체 의식 요인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4.3. 공동체 의식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요인

지역사회개발사업에서 공동체 의식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지역사회의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변수의 인구학적 특성, 지역사회특성, 공동체 의식 구성요소의 다양한 통제변수를 모형1, 모형2, 모형3과 같이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한 결과 3개의 모형을 추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분석결과 모형1, 모형2, 모형3 모두 VIF((Variance Inflation Factor)을 확인한 결과 변수들 간의 다중공산성(1.045~2.258)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잔차의 자기상관 검증결과(Durbin-Watson=1.795) 역시, 자기 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구학적 특성 중 성별, 연령, 학력, 소득을 독립변인으로 투

입하여 지역사회개발의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모형1의 모형적합도를 살펴보면 설명력은 14.8% ($F= 7.301, p<0.001$)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인구학적 특성 변인 중 지역개발사업의 주민참여에 성별은 남자보다 여성이 더 높게 참여하였다. ($\beta =2.525, p<0.05$)가 도출 되었다. 연령($\beta =-4.024, p<0.01$)은 부적인 영향 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연령이 높은 사람보다 연령이 낮은 사람이 지역사회개발 사업에 더 많이 참여한다는 연구결과이다. 학력($\beta =-2.675, p<0.01$) 역시 부적인 영향을 나타냈다. 이는 학력이 낮을수록 지역사회개발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연구결과이다.

다음으로 모형2에서는 모형1에 지역사회요인의 거주형태와 거주기간, 주민협의체 회원 여부 및 주민협의체에서의 역할을 변인으로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모형2의 모형적합도를 살펴보면 설명력은 21.1%($F= 4.836, p<0.01$)로 나타났으며, R^2 의 변화량은 0.063($p<0.05$)으로 유의하였다. 분석 결과 인구학적 특성 변인은 연령($\beta =-3.811, p<0.01$)과 학력($\beta =-2.211, p<0.05$)이 부적인 영향을 나타냈다.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지역사회개발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연구결과이다. 모형2의 지역사회요인의 변인 중 주민참여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발견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모형3에서는 모형2에 공동체 의식의 구성요인으로 추출된 변인 '정서적 친밀감·영향력', '충족감·소속감'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적합도를 살펴보면 설명력은 34.2% ($F= 7.597, p<0.01$)로 나타났다. R^2 의 변화량은 0.131($p<0.01$)로 유의미하였다. 분석결과 인구

(표 4) 지역사회 영향요인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구분	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β	SE	β	t	β	SE	β	t	β	SE	β	t	
인구학적 특성	상수	4.722	.908		5.200	5.254	1.077		4.880	3.672	1.047		3.505	
	성별 (남자=1, 여자=2)	.381	.151	.184	2.525*	.251	.160	.121	1.564	.201	.149	.097	1.353	
	연령	-.040	.010	-.377	-4.024**	-.041	.011	-.383	-3.811**	-.026	.010	-.240	-2.500*	
	학력 (초=6, 중=9, 고=12, 대졸=16)	-.062	.023	-.240	-2.675**	-.052	.024	-.204	-2.211**	-.038	.022	-.149	-1.737	
	소득	.024	.068	.028	.357	.028	.070	.033	.399	.030	.065	.035	.468	
지역사회 요인	거주형태 (거주=1, 비거주=2)					-.292	.263	-.082	-1.107	-.048	.253	-.014	-1.191	
	거주기간					.003	.003	.077	.891	.003	.003	.076	.951	
	협의체회원여부 (예=1, 아니오=2)					-.269	.176	-.128	-1.528	-.082	.165	-.039	-0.500	
	역할	주민 (1 or 0)					.327	.190	.153	1.718	.258	.176	.121	1.472
		이장, 위원장 (1 or 0)					.287	.284	.081	1.011	.318	.261	.089	1.216
공동체 의식	정서적친밀감/영향력									.312	.088	.302	3.536**	
	충족감/소속감									.153	.092	.148	1.670	
F Value		7.301**				4.836**				7.597**				
R ²		.148				.211				.342				
수정된 R ²		.128				.167				.297				
R ² 변화량		.148**				.063*				.131**				

*p<0.05, **p<0.01

- 역할더미(주민=1, 이장·위원장=1)

학적 특성 변인 중 연령($\beta = -2.500$, $p < 0.05$)은 지역사회개발사업의 주민참여에 모형1, 모형2와 동일하게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체의식 요인 변인의 '정서적 친밀감·영향력'은($\beta = 3.536$, $p < 0.01$)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지역사회에서 '정서적 친밀감·영향력'이 높을수록 지역사회개발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결과이다. 반면 '충족감·소속감'은 지역사회개발의 주민참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인구학적 특성 변인을 투입한 모형1에서 남자보다 여자가 지역사회개발의 주민참여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연령과 학력이 낮을수록 지역사회개발사업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분석 결과 나타났다. 지역 사회 구성원들의 '정서적 친밀감·영향력'이 높을수록 지역사회개발사업 참여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이 연구에서는 경남어촌의 8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사

회개발사업에서 지역사회가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대하여 분석해 보고자 했다. 지역사회의 영향요인으로 인구학적 특성과 지역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역사회요인, 지역의 공동체 의식추출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여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위계적 회귀분석 방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인구학적 특성 변인 중 성별, 연령, 학력이 지역사회개발의 주민참여에 중요한 영향요인인 것으로 연구결과 나타났다. 성별은 주민참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남자보다 여자가 주민참여에 더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이는 선행연구(양덕순, & 강영순, 2008)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연령은 주민참여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낮을수록 주민참여율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로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주민참여율이 높다는 연구결과(곽현근, & 유현숙, 2005; 김혜정, 2015; 양덕순, & 강영순, 2008; Gamo, Habebo, Mekonnen, & Park, 2021; Milbrath, & Goel, 1997)와 상반된 연구 결과이다. 연령이 낮을수록 어촌마을에 오래거주하여, 생산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촌마을 지역개발사업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농촌마을과 어촌마을이 차별되지 않고 유사하게 드러나는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학력은 주민참여에 부적인 영향 관계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력이 낮을수록 참여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력이 높을수록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범위가 넓어지고 지역사회의 관심의 증가로 지역사회 참여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연구결과(김혜정, 2015; 양덕순, & 강영순, 2008; Gamo, Habebo, Mekonnen, & Park, 2021; Milbrath, & Goel, 1977)와 상반되는 연구결과이다. 어촌마을은 학력이 낮은 사람들이 마을에 오래 거주하고있으며 그들은 어촌계원으로 주로 활동하고 있다. 어촌 지역개발사업은 어촌계를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어촌계원으로서 어촌계 활동이 많은 사람들이 지역사회참여가 높게 나타난다. 어촌계원들이 어촌마을에 오래 거주하고 지역개발 사업에 참여가 높게 나타나는 이유이다. 이것은 지역개발사업에서 지역사회참여가 일반적인 농촌마을과 어촌마을이 차이가 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인구학적 특성 변인의 학력과 연령이 낮을수록 주민참여가 높다는 연구결과는 조사대상 지역인 어촌지역의 노령화가 심각한 상황임을 나타내는 연구결과이다. 조사대상지역의 고령화로 인한 주민참여와 공동체 의식 구축이 지역사회의 고령화라는 현실적 문제를 맞이하고 있다. 인구학적 특성요인 중 선행연구와 상반된 결과로 제시된 연령과 학력이 주민참여에 부적인 영향을 보이는 연구결과는 조사대상지가 어촌의 고령화 지역사회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조사대상지의 모집표본의 평균연령이 64.8세로 60대의 인구분포(43.9%)가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 내고있다. 이는 조사 대상지의 가장 어린 연령이 40세인 점을 감안 할 때 조사대상 지역의 심각한 고령화로 인한 연구결과로 제시될 수 있다. 학력 수준 역시 1990년대 비해 2020년 한국사회의 교육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는 통계(e-나라지표, 2020)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고령 인구의 저학력이 그 원인으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하여 공동체 의식과 주민참여의 유의미한 영향 관계를 확인하였다. 공동체 의식의 요인으로 추출된 ‘정서적 친밀감·영향력’과 ‘충족감과 소속감’ 중 주민참여에는 ‘정서적 친밀감과 영향력’ 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결과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최문형, & 정문기, 2015)와 일치하는 연구결과이다.

정서적 친밀감은 한정된 지역사회에서 정서적으로 유대감을 느끼는 사람들의 권유는 개인의 참여 결정에 중요한 요인이며, 공유된 감정의 연계는 지역 구성원들 간의 공동체 의식의 구성요인 중 특히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영향력은 양방향 개념 즉, 지역의 구성원으로 그 지역의 일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져

야 한다는 개념 (McMillan, & Chavis, 1986)으로 개인인 자신이 큰 영향력을 발휘 수 있는 공동체 일수록 더 큰 소속감을 가지며(이동주, 2004), 더 적극적인 주민참여로 나타날 수 있는 구성요소이다. 이는 농촌에 비해 어촌지역에 특화되어 있는 어촌계 중심의 응집력과 배타성이 강한 공동체 의식에 의한 결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어촌지역개발사업에서 주민참여는 그 지역 어촌계의 응집력과 연대감을 알아 볼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된다.

이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인구학적 특성의 성별중 여성이 남성보다 지역개발사업에서 참여가 높게 나타났다. 그동안의 어촌지역개발사업은 대부분 어촌계 남성어업인 중심으로 사업추진 되어왔다. 먼저 여성어업인의 사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여성어업인의 위한 조직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추진 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 조직의 임원 구성에 여성의 비율의 확보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조사대상지의 모집표본의 평균연령이 64.8세로 60대의 인구분포(43.9%)가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는 초고령화 지역인 이유로 학력과 연령이 낮을수록 주민참여율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확인하였다. 조사대상 지역의 지역개발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도시지역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 고령화 현상을 늦출 수 있도록 도시인구의 유입을 유도하고 농어촌의 방문경험과 관심이 농어촌 지역의 정주 인구조로 이어질수 있는 방안 마련과 함께 귀농귀촌 이주민의 정착을 제고를 위한 정책제안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개발사업은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을 수행하는 사회개선사업(정화성, 1995)으로 사업 참여인구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이유로 연령이 낮을수록 더 높은 참여(곽현근, & 유현숙, 2005; 김혜정, 2015; 양덕순, & 강영순, 2008; Gamo, Habebo, Mekonnen, & Park, 2021; Milbrath, & Goel, 1977; Talò, Mannarini, & Rochira, 2014)가 나타나고 있다. 주민의 교육수준을 지역사회개발사업의 한계로 제시(Hassan, Muturi, & Samantar, 2018)한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인구분포를 반영한 초고령화의 인구 소멸지역에 대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한 차별화 된 개발사업이 정책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실무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다. 여성의 사업 참여율이 높다는 연구결과에서와 같이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전문 인력자원으로 지역의 여성인력의 지속적 발굴과 인적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 그들이 전문 인력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기반마련을 위한 꾸준한 역량 강화교육지원이 수반 되어야 할 것이다. 다양한 인문교육과 실무적 교육을 통하여 지역의 전문 인력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지원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결과에서 공동체 의식 구성요인의 ‘정서적 친밀감과 영

향력'은 주민참여에 중요한 영향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 구성원들의 친밀한 관계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주민들이 한 공간에서 주민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친밀한 관계 형성을 구축할 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의 공간적·환경적 지원이 중요하다. 이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주민의 응집력과 공유된 감정의 연계가 자칫 이주민에 대한 포용력이 낮아지지 않도록 지역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소통의 기회가 함께 동반되어야 할 중요한 부분이다.

이 연구는 전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사회개발사업 중 경남 어촌마을의 어촌특화사업이라는 한 가지 유형을 분석한 것이다. 이는 경남어촌마을에 한정된 지역에서의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지역사회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지역사회활동과 관련된 변인(종교 활동, 참여횟수, 참여시간, 참여모임 개수 등)과 지역사회 친밀도, 지역사회 만족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참고 문헌

- 강용배. (2004). 농촌마을공동체의 역량강화 사례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8(4), 5-26.
- 고진숙. (2019). 도시관광 재생사업에서 공동체의식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장소애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곽현근, & 유현숙. (2005). 지역사회 주민조직 참여의 영향요인과 집합적 효능감: 충북 청원군을 대상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6(1) 347-376.
- 권정미, & 박태영. (2014). 도농지역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51(4), 127-154.
- 김경준. (1999). 지역사회 주민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필두, & 윤준희. (2016). 주민의 공동체 의식이 마을만들기의 참여자의 역할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책학회보*, 25(1), 1-15.
- 당인숙, & 류진아. (2017). 농촌 마을만들기 참여주민의 공동체 의식 영향요인. *농촌지도와 개발*, 24(4), 265-278.
- 박덕병, 임광명, & 안재문(2018). 농촌지역주민 공동체의식의 지역사회참여 영향요인. *농촌지도와 개발*, 25(3), 135-148.
- 박덕병, 조영숙, & 이민수. (2006). 농업인의 농촌지역사회 만족 결정요인.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8(3), 49-74.
- 성희자, & 전보경. (2006). 농촌지역주민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27, 149-170.
- 양덕순, & 강영순. (2008). 지역공동체의식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양 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1), 71-89.
- 이동주. (2004). 온라인 수업에서 학습자들의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공동체의식 형성에 관한 고찰. *교육공학연구*, 20(3), 53-73.
- 이소영. (2019). 지방자치에서의 주민참여 현황과 문제점: 대구 사례를 중심으로. *21세기 정치학회보*, 29(1), 69-100.
- 임우현. (2006). 공동체의식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관의 후원자 관리방안. 대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채식, 박덕병, & 박은식. (2007). 농촌청소년이 지역사회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미래청소년학회지*, 4(1), 19-36.
- 이춘우. (2000). 공동체의 우리의식과 노년기의 삶의 질. 경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어촌특화발전지원특별법. (2017).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정민수, 조병희, & 이성천. (2007). 지역사회 자발적 결사체의 연결망과 지역사회 역량. *보건행정학회지*, 17(4), 54-81.
- 정하용. (2007). 지방자치시대의 지역사회개발과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9(3), 1-29.
- 최문형, & 정문기. (2015). 공동체의식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학회보*, 48(2), 273-306.
- 최홍규. (2008). 지방정부 공공서비스 성과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회보*, 22(2), 17-34.
- 하병규, & 권영주. (2015). 공동체의식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5-225. 2015년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
- 하세현, & 윤이화. (2012). 지방자치와 주민참여에 관한 이론적 고찰. *국제정치연구*, 15(1), 157-182. doi:10.15235/jir.2012.6.15.1.157
- 통계청. (2020). 인구증가율. 통계청. <https://kosis.kr/>
- 통계청. (2020). 고용률 시도. 통계청. <https://kosis.kr/>
- 통계청. (2020). 대기오염도 현황. 통계청. <https://kosis.kr/>
- 통계청. e-나라지표. (2020). 고등교육규모, www.index.go.kr
- Bachrach, K. M., & Zautra, A., J. (1985). Coping with a community stressor: The threat of a hazardous waste facility.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6(2), 127-141. doi:10.2307/2136602

29. Bateman, H. V. (2002). Sense of community in the school: Listening to students' voices. In Fisher, A. T., Sonn, C. C., & Bishop, B. J.(Eds.),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Research, applications, and implications* (pp. 161-179). New York: Kluwer Academic/Plenum Publishers. doi:10.1007/978-1-4615-0719-2_9
30. Brodsky, A. E., & Marx, C. M. (2001). Layers of identity: Multiple psychological senses of community within a community setting.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9*(2), 161-178. doi:10.1002/1520-6629(200103)29:2<161::AID-JCOP1011>3.0.CO;2-1
31. Chavis, D. M., & Wandersman, A. (1990). Sense of community in the urban environment: A catalyst for participation and community development.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8*(1), 55-81. doi: 10.1007/BF00922689
32. Cheers, B., & Luloff, A. E. (2001). Rural community development. In S. Lockie & L. Bourke (Eds.), *Rural Bites, The social and environmental transformation of rural Australia* (pp. 129-142). Annandale, NSW, Pluto Press.
33. Cowman, S. E., Ferrari, J. R., & Liao-Troth, M. (2004).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firefighters' sense of community and perceptions of care.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2*(2), 121-126. doi:10.1002/jcop.10089
34. Davidson, W. B., & Cotte, P. R. (1989). Sense of community and political participation.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7*(2), 119-125. doi:10.1002/1520-6629(198904)17
35. Gamo, B. R., Habebo, T. W., Mekonnen, G. T., & Park, D. B. (2021). Determinants of community participation in a watershed development program in Southern Ethiopia. *Community Development, 53*(2), 150-166. doi.org/10.1080/15575330.2021.1946576
36. Ghai, D. (1990). Participatory development: Some perspectives from grassroots experience. *Trade, Planning and Rural Development*, (pp. 79-115). London: Palgrave Macmillan. doi:10.1007/978-1-349-11415-3_7
37. Grillo, M. C., Teixeira, M. A., & Wilson, D. C. (2010). Measurement of social participation and its place in social capital theory. *Social Indicators Research, 100*(2), 331-350. doi:10.1007/s11205-009-9511-0
38. Hassan, A. N., Muturi, W., & Samantar, M. S. (2018). Factors influencing active community participation in local development projects: A case of JPLG pProject in Garowe, Puntland state of Somalia.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emporary Applied Researches, 5*(8), 109-127.
39. Herman, S., Onaga, E., Pemice-Duca, F., Oh, S., & Ferguson, C. (2005). Sense of community in clubhouse programs: Member and staff concept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6*(3-4), 343-356. doi:10.1007/s10464-005-8630-2
40. Hill, J. L. (1996).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4*(4), 431-438. doi:10.1002/(SICI)1520-6629(199610)24
41. Hughey, J., Speer, P. W., & Peterson, N. A. (1999). Sense of community in community organizations: Structure and evidence of validit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7*(1), 97-113. doi.org/10.1002/(SICI)1520-6629(199901)27:1<97::AID-JCOP7>3.0.CO;2-K
42. Huntington, S. P., & Nelson, J. M. (1976). No easy choice: Political particip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2*(2), 735-736. doi: 10.2307/1954204
43. Jennings, B. M., & Krannich, R. S. (2013). A multidimensional exploration of the foundations of community attachment among seasonal and year-round residents. *Rural Sociology, 78*(4), 498-527. doi:10.1111/ruso.12019
44. Kameshwari, P. (2005). Attracting supermarkets to inner-city neighborhoods: Economic development outside the box. *Research Article, 19*(3), 232-244. doi.org/10.1177/0891242404273517
45. Mannarini, T., & Fedi, A. (2009). Multiple sense of community: The experience and meaning of community.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7*(2), 211-227. doi:10.1002/jcop.20289
46. Mansuri, G., & Rao, V. (2013). Can participation be induced? Some evidence from developing countries. *Critical Review of International Social and Political Philosophy, 16*(2), 284-304. doi:10.1080/13698230.2012.757918
47. Matarrita-Cascante, D., Luloff, A. E., Krannich, R. S., & Field, D. R. (2006). Community participation in rapidly growing communities in southern Utah. *Community Development, 37*(4), 71-87. doi:10.1080/15575330609490196
48. McMillan, D. W., & Chavis, D. M. (1986). Sense of community: A definition and theory.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1), 6-23. doi: 10.1002/1520-6629(198601)14
49. Mesch, G. S., & Schwirian, K. P. (1996). The effectiveness

- of neighborhood collective action. *Social Problems*, 43(4), 467-483. doi:10.2307/3096955
50. Miers, R., & Fisher, A. T. (2002). Being church and community: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in a local parish. In A.T. Fisher, C.C. Sonn, & B.J. Bishop (Eds.),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Research, applications, and implications* (pp. 141-160). New York: Kluwer Academic/Plenum Publishers. doi:10.1007/978-1-4615-0719-2_8
 51. Milbrath, W., & Goel, M. L. (1977). Political participation: How and why do people get involved in politic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2(4), 1482-1484. doi:10.2307/1954644
 52. Nussbaum, M. (1999). Women and equality: The capabilities approach. *International Labour Review*, 138(3), 227-245. doi:10.1111/j.1564-913X.1999.tb00386.x
 53. Oakley, P. (1989). *An examination of critical issues: Community involvement in health development*. Geneva, Switzerland: World Health Organization.
 54. Obst, P.L., Zinkiewicz, L., & Smith, S. (2002). Sense of community in science fiction fandom, Part1: Understanding sense of community in an international community of interest.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0(1), 105-117. doi.org/10.1002/jcop.1052
 55. Peterson, N. A., Speer, P. W., & McMillan, D. W. (2008). Validation of a brief sense of community scale: Confirmation of the principal theory of sense of communit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6(1), 61-73. doi.org/10.1002/jcop.20217
 56. Perkins, D. D., Florin, P., Rich, R. C., Wandersman, A., & Chavis, D. (1990). Participation and the social and physical environment of residential blocks: Crime and community context.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8, 83-115. doi:10.1007/BF00922690
 57. Sanchez-Franco, M., Buitrago-Esquinas, E., & Yniguez, R. (2012). How to intensify the individual's feelings of belonging to a social networking site? Contributions from community drivers and post-adoption behaviors. *Management Decision*, 50(6), 1137-1154. doi:10.1108/00251741211238373
 58. Sapetra, N., Ridwan, R., Sahide, M., & Masuda, K. (2019). Local community's perception, attitude, and participation towards different level management of geopark: A comparison geosite case study, between Muroto cape and Rammang-rammang geosite. *IOP Conference Series: Earth and Environment Science*, 343(1), 1-12. doi:10.1088/1755-1315/343/1/012044
 59. Sonn, C. C. (2002). Immigrant adaptation: Understanding the process through sense of community. In A. T. Fisher, C. C. Sonn, & B. J. Bishop (Eds.),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Research, applications, and implications* (pp. 205-222). New York: Kluwer Academic/Plenum Publishers. doi:10.1007/978-1-4615-0719-2_11
 60. Talo, C., Mannarini, T., & Rochira, A. (2013). Sense of community and community participation: A meta-analytic review. *Social Indicators Research*, 117, 1-28. doi: 10.1007/s11205-013-0347-2
 61. Wandersman, A., & Florin, P. (2000). Citizen participation and community organizations. *Handbook of Community Psychology* (pp. 247-272). New York: Springer.
 62. Wu, F. (2012). Neighborhood attachment, social participation, and willingness to stay in China's low-income communities. *Urban Affairs Review*, 48(4), 547-570. doi:10.1177/1078087411436104
 63. Zimmerman, M. A., & Rappaport, J. (1988). Citizen participation, perceived control and psychological empowerment.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6, 725-750. doi:10.1007/BF00930023

Received 17 May 2022; Revised 02 June 2022; Accepted 15 June 2022



Ms. Kyoung-Han Lee is a Ph.D Candidate at the Department of Community Development, Kongju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Her research interests focus on community development and urban regeneration

Address: (32439) Department of Regional Development, College of Industrial Science, Kongju National University, 54 Daehak-ro, Yesan-eup, Yesan-gun, Chungcheongnam-do, South Korea

E-mail: lenvie@nate.com

phone: 82-42-716-0137



Dr. Duk-Byeong Park is a Professor at the Department of Regional Development, Kongju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His research interests focus on rural development and rural tourism.

Address: (32439) Department of Regional Development, College of Industrial Science, Kongju National University, 54 Daehak-ro, Yesan-eup, Yesan-gun, Chungcheongnam-do, South Korea

E-mail: parkdb84@kongju.ac.kr

phone: 82-41-330-1383